

『문화예술로 그리는 미래』

(제 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정책 리뷰)

Part #1 ~#2 통합본

『문화예술로 그리는 미래』

(제 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정책 리뷰)¹⁾

Part #1 ~ #2 통합본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지난 2025.5.27.(화)~30(금), 4일 동안 전 세계 94개 나라에서 온 총 약 406명의 예술가, 문화기획자, 문화정책가, AI 과학자 등이 대학로에서 문화와 예술과 인류 미래에 대한 야단법석(惹端法席) 토론의 장을 벌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연합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10th 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 Seoul 2025)>가 아르코예술극장을 비롯한 대학로 일대 문화시설들과 DDP, 리움미술관 등을 오가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의 공식 주제는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Charting the future of arts and culture)”이었는데, 기존의 문화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AI 기술이 만드는 인류 미래에 대한 문화적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루는, “문화와 예술로 인류의 미래 대비하기 (Charting the Human Future through Arts and Culture)”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큐레이션, 맥락의 풍부함, 여러 국가들에서 확인되는 차이와 격차를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모임”이었다는 한 행사 참가자의 평가처럼, 이번 행사는 성실하고 정교한 정책토론 준비와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넉넉한 품을 한껏 보여주는 환대가 어우러져, 정말 찬사를 받을 만한 국제-문화-정책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행사 세부 주제 및

1) "Charting the Human Future through Arts and Culture: Policy Review of 10th 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 Seoul 2025 (by Hae-Bo Kim, Culture+Policy Issue Paper Vol. 2025-6, SFAC, 2025.6.12)

프로그램 단위의 리뷰는 주최측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지만,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영감을 얻었던 참여자로서 그 정책적 의미를 따로 곱씹어 봅니다. 총 4일 동안 다중언어로 주워 들은 엄청난 양의 말들을 요약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누락과 맥락이탈이 우려됩니다만, “나는 이렇게 들었다(如是我聞)”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관점으로, 기존의 생각과 관행을 깨준 야단법석(惹端法席)에서의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최측이 구성했던 주제와 연결된 핵심 키워드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발화된 말들을 적어뒀다가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이 이슈페이퍼 작성했습니다. 방대한 이야기들을 궂기 위해 서로 연결되면서도 긴장 관계에 있는 9개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4일 간의 이야기를 Part 1과 Part 2로 두 번에 나누어 전해드립니다. Part 1에서 “말(언어)과 이름, 서사(Narrative)와 숫자(Data), 기술과 속도” 등 세 개 키워드를, Part 2에서는 “AI와 예술(가), 탈식민지화와 권리 재편, 원주민과 문화주권자, 바람과 보이지 않는 힘, 한국적인 것과 K, 실천하기와 연결되기” 등 6개 키워드로 이번 총회에서 펼쳐진 세계 문화정책의 현재 담론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주최 측이 사전에 제공한 <토론문> 중 에티오피아의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프로그램 큐레이터인 사라 압두 부슈라(Sarah Abdu Bushra)가 저술한 <**④**세계만들기를 향하여(Towards worldmaking)>는 “세계만들기(worldmaking)를 위한 우리의 행위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집단적 모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듯, 다양한 지식 생산을 위한 원천과 공간 또한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만들기(worldmaking)의 핵심적 행위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평소와 같은 가치를 마음에 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새로운 맥락 위로 그것을 투영하면서 인식의 폭은 넓어지고, 소위 “계몽”되어 좀 더 나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국제 문화정책 교류행사의 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사례와 생각을 주고받고 깨달음을 얻어 성장한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문화예술로 더 좋은 세계 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문화예술로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애쓰고 있는 모든 동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흘간의 야단법석(惹端法席)에서 얻은 교훈을 나눕니다.

토론문의 환영사에 인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5년 출범 선언문 문구처럼, “예술이 세상을 바꾸며 삶들을 바꾼다는 진실”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지, 지구 곳곳에서 온 사람들의 관점과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 목 차 >

0.	제 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Seoul 2025	Part #1. (2025.6.12. 발간)
1.	Charting the Future of Arts and Culture (문화예술 의/로 미래 구상)	
2.	미래를 (재)구상 하는 도발자들(Provocateur)의 시나리오	
3.	9개 키워드로 재구성한 4일 간의 이야기들 #1 1) 말(언어)과 이름 2) 서사(Narrative)와 숫자(Data) 3) 기술과 속도	
4.	9개 키워드로 재구성한 4일 간의 이야기들 #2 4) Ai와 예술(가) 5) 탈식민지화와 권력재편 6) 원주민과 문화주권자 7) 바람과 보이지 않는 힘 8) 한국적인 것과 K 9) 실천하기와 연결되기	Part #2. (2025.6.25. 발간)
5.	문화예술로 세계 만들기 (World Making or Building)	

0. 제 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Seoul 2025

□ 80여 개 나라에서 문화예술로 모인 한바탕 야단법석(惹端法席)²⁾

지난 2025.5.27.(화)~30(금), 4일 동안 전 세계 94여개 나라에서 온 총 약 406명의 예술가, 문화기획자, 문화정책가, AI 과학자 등이 대학로에서 문화와 예술과 인류 미래에 대한 야단법석(惹端法席) 토론의 장을 벌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연합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10th 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 Seoul 2025)>가 아르코예술극장을 비롯한 대학로 일대 문화시설들과 DDP, 리움미술관 등을 오가며 진행되었습니다. IFACCA 사무총장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Magdalena Moreno Mujica)가 5월 28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개회 행사에서 요약한 것처럼, 이번 행사는 "전 세계 문화정책이 당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행동계획을 세우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Sylvie Durán Salvatierra) 코스타리카 문화정책 전문가는 전날 전체 행사를 리뷰해 주는 <2일차 돌아보기 : ROUND UP OF DAY TWO>(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³⁾ "일관성 있는 큐레이션, 맥락의 풍부함, 여러 국가들에서 확인되는 차이와 격차를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모임"이라고 촤평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번 행사는 성실성하고 정교한 정책토론 준비와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넉넉한 품을 한껏 보여주는 환대가 어우러져, 정말 찬사를 받을 만한 국제-문화-정책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 행 사 명 :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2025 서울(10th 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 Seoul 2025)
- 기 간 : 2025.5.27.(화)~30(금), 4일 간 (회원행사 기간 : 2025.5.25.(일)~5.27(화))
- 장 소 : 서울 대학로 일대 등 (DDP, 리움 미술관 등)
- 행사구성 : 총 36개 세션에 65개국 106명의 연사 참여, 발표, 토론, 워크숍, 현장 방문
- 참 가 자 : 캐나다, 남아공, 스페인 등 94여개국 문화예술전문가 406명 참여
☞ 연사 프로필 사이트 : <https://www.artsummit.org/programme-participants>
- 주 제 :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Charting the future of arts and culture)
- 주 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공동주최
- 홈페이지 : <https://www.artsummit.org/introduction-kr>

2) 참가자 숫자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4.22.일자 보도자료 및 2025.6.12.일자 IFACCA 뉴스레터를 참조함

3) 본 이슈페이퍼에 인용된 총회 참가자들의 상세 발언 내용은 별첨 <상세 참고자료> 참조



도깨비를 모티브로 한 행사 메인 이미지
(이미지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아르코예술극장 등에서 진행된 제 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사진 출처 : 저자)

1. Charting the Future of Arts and Culture (문화예술 의/로 미래 구상)

□ 문화와 예술로 인류의 미래 대비하기(Charting the Human Future through Arts and Culture)

총회의 공식 주제는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Charting the future of arts and culture)”이었습니다. 이를 세 가지 세부 주제 -(1)지식 체계와 주체성 (Knowledge System and Agency) (2)참여 체계와 유대감 (Participatory System and Connectedness) (3)디지털 체계와 기술 (Digital System and Technology)-로 확장해서 전체 토의 구조를 탄탄하게 구성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북⁴⁾에서의 설명대로 사흘간의 본 행사는 “불확실하고 취약한 이 시대, 우리는 다중위기(policrisis) 상태에 직면하여... 세 가지의 공통적인 대주제(transversal cluster)에 대한 미래 전망과 대응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토론문 책자에 인용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5년 출범 선언문 문구처럼, “예술이 세상을 바꾸며 삶들을 바꾼다는 진실”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꼼꼼한 기획이었습니다.

4) 프로그램 및 토론문 다운로드 <https://www.artsummit.org/>

□ 토론문 -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Discussion paper - Charting the future of arts and culture)

이번 행사는 국제프로그램자문위원회(IPAC, International Programme Advisory Committee)와 협력으로 전체 토론 구조를 구성하고, 9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토론문을 사전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된 토의 내용들은 기존의 문화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AI 기술이 만드는 인류 미래에 대한 문화적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로 인류의 미래 대비하기(Charting the Human Future through Arts and Culture)”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토론문 구성>

① 권리의 보장, 권력의 재분배, 그리고 미래 구상을 위하여

(To guarantee rights, redistribute power, build futures)

- 하즈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 (스페인 문화부 문화권리국 국장 Jazmín Alejandra Beirak Ulanosky)

② 생성형 AI와 서사 간의 갈등: 인간의 의도와 기계의 논리

(Narrative struggles with Generative AI: of human intentions and machine logics)

- 니산트 샤 (홍콩중문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Nishant Shah)

③ 한국의 ACTscape: 예술, 문화, 기술(ACT)의 색다른 확산과 융합(difFusion)

(The ACTscape of South Korea: The DifFusion of Art, Culture, and Technology (ACT))

- 이준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부교수, Zune Lee)

④ 세계만들기(worldmaking)를 향하여

(Towards worldmaking)

- 사라 압두 부슈라 (에티오피아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프로그램 큐레이터, Sarah Abdu Bushra)

⑤ 스펙트럼으로서의 참여 개념

(Participation is a spectrum)

- 마우리시오 델핀 (국가예술정책연구소 공동소장, Mauricio Delfin)

⑥ 마오리의 관점으로 본 원주민 권리 보호, 지식 체계 인정, 리더십 증진

(Advancing Indigenous rights, knowledge and leadership: a Māori perspective)

- 파울라 카 (뉴질랜드문화예술위원회 마오리 전략 및 파트너십 담당 수석 관리자, Paula Carr)

- 하니코 테 쿠리파 (뉴질랜드문화예술위원회 테 카우피파 오 토이 아오테아로아 수석 관리자 Haniko Te Kurapa)

⑦ 미래를 엮어가는 여정: 과거를 기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다

(Weaving Futures: Honouring the past, embracing new possibilities)

- 마리추 G. 텔라노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사무차장, Marichu G. Tellano)

⑧ 실천에서 정책으로, 그리고 다시 실천으로: 유럽에서의 문화민주주의 증진

(From practice to policy and back: advancing cultural democracy in Europe)

- 라르스 에베르트 (벨기에 컬쳐액션 유럽 사무국장, Lars Ebert)

⑨ 저항을 통해 세계를 다시 만들어나가기

(Resist and remake the world)

- 마르셀라 플로레스 멘데스 (멕시코 디지털문화센터 센터장, Marcela Flores Méndez)

2. 미래를 (재)구상 하는 도발자들(Provocateur)의 시나리오

□ 미래를 (재)구상((Re)Imagining our futures) 하는 월드카페(WORLD CAFÉ)

이번 총회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가장 흥미로운 방식이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 전체를 활용해서 진행한 <월드 카페>였습니다. 주최 측은 이를 “예술과 문화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집단적 통찰을 생성하는 역동적이고 참여형 대화 프로세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미래 구상>이 바로 이런 미래 예측 시나리오 공유와 대응 방안 도출 과정이라면, 월드 카페는 그 깊은 논의에 들어가기 전 브레인스토밍과 여론 수렴의 아고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토니 아타드(컬처 벤처 창립자, Toni Attard)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8명의 ‘도발자(Provocateur)’들의 “2050년 세계: 60초 도발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050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여 제시하고, 20여 개의 원탁으로 초대된 참가자들이 현재 현실에서 이상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공동으로 도출하는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테이블별 호스트의 사회로 진행한 논의 결과를 해당 주제의 도발자(Provocateur)들이 종합해서 마지막에 공유하는 방식이 꽤 다이나믹했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 위에서 8개 주제별 분임토의로 진행된 <월드카페> 전경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 '도발자(Provocateur)'들이 "2050년 세계"를 그린 미래 시나리오

8명의 도발자들이 제시하는 25년 뒤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류의 미래 모습은 얼핏 보면 풍요롭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동시에 통제되고 분열되어 우울한 잣빛을 띕니다. 미래를 만드는 문화와 기술과 예술과 시민의 권리 관계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술적 상상력과 비판의식을 동원하여 그려낸 미래 모습에서 공공정책의 과제 목록을 발견 할 수 있어서, 좀 길지만 자세히 소개합니다.

① Co-creating Pathways for Sustainable Cultural Ecosystems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로 가는 공동 창조의 길)

- 플루언 프림 (캄보디아 리빙 아츠 대표, Phloeun Prim)

: 2050년, 문화 분야는 마침내 필수적인(essential)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그러나 대가가 따랐다. 정부는 문화를 지원하지만, 그것이 경제적 목표에 부합할 때만 그렇다. 예술가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지만, 창작의 제약이 따른다. 공동체는 권한을 갖지만, 국가가 승인한 내러티브를 따를 때만 그렇다. 우리는 과연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한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자율성을 거래한 것인가?

② Fostering Dialogue Across Divides and Beyond Echo Chambers

(분열과 에코체임버 현상을 극복하는 대화 촉진)

- 파블라 페트로바 (체코 예술연극연구소 소장, Pavla Petrová)

: 2050년, 소셜 미디어는 이념적 요새들(ideological fortresses)로 분열되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현실을 큐레이션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확인시켜주는 것만 보여준다. 물리적인 대화 공간은 사라졌다 — 알고리즘이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왜 공적 토론의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우리는 여전히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대화'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③ Advancing Equity, Justice and Cultural Rights

(형평성, 정의, 문화권 증진)

- 하켈 다 크루즈 리마 (ARTICLE 19 브라질 및 남아메리카 법률참고센터 센터장, Raquel da Cruz Lima)

: 2050년, 문화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누구의 문화가 보호받는가, 그리고 누가 이를 정의하는가? 일부 주변화된 공동체는 마침내 발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얻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다. 탈식민화 노력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본주의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형평성을 증진시킨 것인가, 아니면 단지 새로운 게이트키퍼들을 만들어낸 것인가?

④ Honouring Living Cultures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살아 있는 문화(Living Cultures)와 원주민 지식 체계 존중)

- 하니코 테 쿠라파 (뉴질랜드예술위원회 테 카우피파 오 토이 아오테아로아 수석 관리자, Haniko Te Kurapa)

: 2050년, 원주민의 지식과 관행은 마침내 우리의 삶과 일,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법 체계 안에서 다른 체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또한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민의 실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를 특허화하는 기업들이 이윤을 얻기 시작했다. 자기결정권은 달성되었는가? 우리는 살아 있는 문화를 존중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들의 지식을 착취 가능한 자원으로 추출한 것인가?

⑤ Addressing Human-Nature Connectedness and the Climate Crisis

(인간-자연 연결성과 기후위기 대응)

- 박지선 (한국 독립 프로듀서, Jisun Park)
: 2050년, 문화 분야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수용했다. 그러나 자원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 — 희소성(scarcity)의 세계에서 창의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예술가들은 디지털 폐기물을 작품으로 재활용하고, 극장은 태양광으로 운영되며, 박물관은 물리적 전시물을 금지했다. 우리는 자연과 다시 연결된 것인가, 아니면 문화 자체가 생존주의(survivalism)에 의해 재구성된 것인가?

⑥ Navig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Digital Realities and Power Dynamics

(인공지능(AI), 디지털 현실, 권력 역학 탐색)

- 이준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부교수, Zune Lee)
: 2050년이 되자, AI는 우리의 예술 대부분을 창작하고, 우리의 역사를 쓰고 다시 쓰며, 문화적 서사(cultural narratives)를 규정한다. 인간 예술가는 드물며 — 특권층의 사치품이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문화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감시를 정당화한다. 이 AI 지배의 미래에서 문화 기억을 통제하는 자는 누구인가 — 인간인가, 기계인가, 아니면 그것을 프로그래밍한 자들인가?

⑦ Ensuring Decent and Fair Working Conditions in the CCS

(문화·창의산업(CSS)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

- 신 구(모나시대학교 문화창의산업 석사과정 책임자, Xin Gu)
: 2050년: 문화 노동자들이 마침내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복지를 누리는 세상 — 그러나 대가가 있다. AI가 생성한 예술이 프리랜서를 대체했고, 보편적 기본소득은 창작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지만 혁신을 억제한다. 공공 재정 지원은 AI가 생성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단일 문화적 기준에 기반하여 더 이상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분야를 특별하게 만드는 문화와 창의적 표현의 상징성을 희생한 것인가?

⑧ Strengthening Global Governance and Transnational Cultural Relations

(글로벌 거버넌스 및 초국가적 문화 관계 강화)

- 전윤형 (한국 영화정책 전문가, Yoonhyung Jeon)
: 2050년, 글로벌 문화 거버넌스는 — 권력 블록들에 의해 — 재정의되었다. 문화는 외교적 도구가 되어, 화폐처럼 거래된다. 일부 국가(혹은 블록)는 '문화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검열을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은 '개방 접근'을 주장하지만 그것도 그들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우리는 협력을 증진시킨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제국주의를 만들어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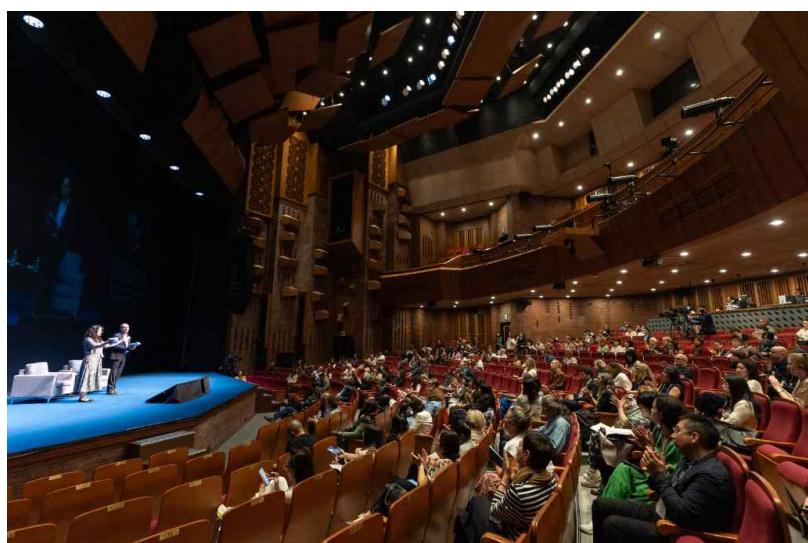
3. 9개 키워드로 재구성한 4일 간의 이야기들 #1

□ 곱씹는 자의 키워드로 대화 재구성 하기

행사 세부 주제 및 프로그램 단위의 리뷰는 행사 주최측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영감을 얻었던 참여자로서, 주최측이 구성했던 주제와 연결된 핵심 키워드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발화된 말들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전체 행사의 정책적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매우 긴밀하고 구조적으로 잘 프로그램 된 각 세션에서 오고 간 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필자에게 좀 더 강력한 영감을 줬던 이야기들을, 9개의 키워드로 뛰어서 재구성 해봤습니다. 총 4일 동안 다중언어로 주워 들은 방대한 양의 말들을 요약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누락과 맥락이탈이 우려되지만, “나는 이렇게 들었다(如是我聞)”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곱씹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정책적 의미 요약 9개 키워드	구분
1) 말(언어)과 이름	
2) 서사(Narrative)와 숫자(Data)	
3) 기술과 속도	
4) AI와 예술(가)	
5) 탈식민지화와 권력재편	
6) 원주민과 문화주권자	
7) 바람과 보이지 않는 힘	
8) 한국적인 것과 K	
9) 실천하기와 연결되기	
	Part #1. (2025.6.12. 발간)
	Part #2. (2025.6.26. 발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비롯한 대학로 일대 문화시설에서 4일 간 진행된 문화와 예술과 인간과 미래에 대한 방대한 양의 이야기들을 9개 키워드로 다시 엮어냄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 Part 1 : 말(언어)과 이름, 서사(Narrative)와 숫자(Data), 기술과 속도

요약 키워드	관련 내용들
1) 말(언어)과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는 문화의 핵심자원이며 문화전승의 매개체 -언어 위기가 곧 문화의 위기 : AI가 언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이름을 통해 소통하지만 번역되는 말 뒤로 사라지는 원래 의미들 -보편성을 지향해야 하는 법의 언어에 의해 소거되는 맥락들 -Creative ** 등 문화기관의 이름 변화에 반영되는 문화정책 영역과 역할의 변화 기대 -국제 공통의 당면 문제를 지칭할 적절한 언어 선택 시의 문제
2) 서사(Narrative)와 숫자(D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시대에 서사의 힘 : 효율을 추구하는 뇌는 정보보다 이야기를 선호함 -서사(Narrative)가 만드는 힘 : 인간은 이야기로 뭉친다 -서사를 만드는 힘(권력)의 불균형 -네러티브를 소유하는 자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부지런히 모으는 자 -문화적 서사 바꾸기 노력 :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 바꾸기, 새로운 통계 지표 제안하기, 숫자로 서사 바꾸기 -숫자 바꾸기...생각의 틀 바꾸기,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게 하기 -네러티브를 바꾸는 예술의 힘. 정책을 바꾸는 힘
3) 기술과 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로서 기술, 문제 해결책으로서 기술의 양면성 -기술 사용의 투명성이 중요 -문제 해결의 주체는 인간 : 인간이 기술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함. 예술가의 대담함을 믿고, 인간이 주체성을 가져야 함. -속도의 문제 : 기술을 따라갈 인식의 속도, 제도의 속도 문제 -시간과 기술도 문화적인 것 : 시계와 시간, 마우리의 새해 기념, 우주를 해석하는 기술, 결핍의 사고가 아닌 디지털 복제 시대의 사고 필요 -문제 해결 위한 관계 지속이 더 큰 문제 -공감으로 신뢰를 만들기 위해 속도 늦추기 필요 : 시간이 신뢰의 바탕

키워드 1) 말(언어)과 이름

이번 총회의 첫 번째 종합 세션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시각예술가 김아영과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AI 전문가 마이클 러닝 울프(FLAIR 수석 아키텍트, Michael Running Wolf)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자기 부족의 전통 신발과 서양식 정장으로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보여주는 러닝 울프 수석 아키텍트는 AI를 활용하여 사라질 위험에 있는 소수 부족 언어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한 김아영 작가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창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저항, 회복력, 대응, 갱신 : Resistance, resilience, response, renewal>을 주제로,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반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⁵⁾.

마이클 러닝 울프는 “언어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언어는 예술문화, 인간 이해의 매개체이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첨단 기술이 공략하는 핵심 문화자원으로서 인식되는 지금 “인디언 조상들이 토지를 백인들에게 내주었던 것처럼 언어를 내주면 안 된다. 토지, 지식재산권, 문화는 인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동의합니다>를 무심히 누르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족 전통 신발과 서양식 정장으로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보여주는 AI 전문가 마이클 러닝 울프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5) 여기에 소개된 대화 내용은 해당 세션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본 키워드 관련 서술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공교롭게도 그의 말은 마지막 날 마지막 통합 세션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의 에밀 카이루아(Emile Kairua) 쿡제도 문화개발부 장관급 차관의 말과도 연결됩니다. 카이루아 차관은 “원주민 언어가 사라지는 중이다. 언어는 중요하다. 문화의 전승 매개체이다. 언어가 처한 위기 상황은 곧 문화가 소멸될 위기상황과 같다. 언어 상실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에라리온 문화정책 자문가이자 작가인 야리 카마라(Yarri Kamara)도 아프리카 문화정책이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로 “언어를 CCI(문화창조산업)로 부르기 보다 CCS(문화창조영역)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통합 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 에밀 카이루아는 “마을 사람들끼리의 논의로는 언어 보존이 불가능하다.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마이클 러닝 울프의 프로젝트와 같이 “AI를 활용해서 언어 보존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AI 시대에 소수 언어가 겪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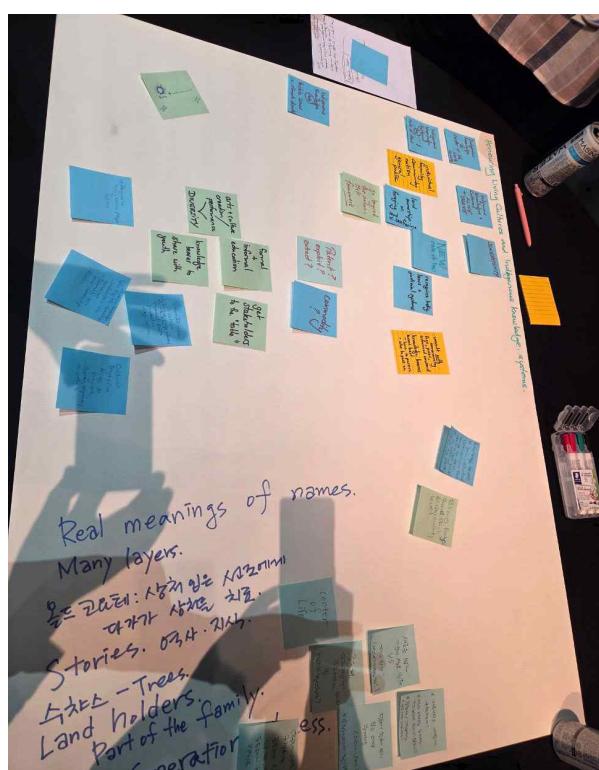
<월드카페: 미래의 (재)구상>(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후)의 <Table 4. 살아 있는 문화와 원주민 지식 체계 존중>에서는 소수 원주민 부족의 권리가 보편적 언어로 쓰여지는 “법의 지배 체계(the system in the rule of law)”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률 조항을 표현하는 말은 언어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그 개념은 해당 언어 공동체의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언어로 쓰여지는 법률이 소수 부족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마침 이 테이블에 참여한 마이클 러닝 울프의 부인 캐롤라인 러닝 울프는 인디언 말 “수”(súu')를 영어로 번역하면 “tree”가 되지만, 그것의 원래 뜻은 “land holder”라고 전해줬습니다. 나무들과 친척 관계를 맺기도 하는 인디언들의 나무에 대한 인식은 영어 사용자와 다른데, 그것이 단순히 “tree”라는 말로 번역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land holder”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여 땅을 붙드는 “것”으로 이해할지 “사람”으로 이해할지도 그녀의 세계관을 확인한 이후에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Sylvie Durán Salvatierra) 코스타리카 문화정책 전문가는 전날 전체 행사를 리뷰해 주는 <2일 차 돌아보기 : ROUND UP OF DAY TWO>(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 “모든 국가들이 겪는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드 카페의 미래 시나리오 “③형평, 정의, 문화권 증진”을 쓴 세 번째 도발자 하켈 다 크루즈 리마(Raquel da Cruz Lima) ARTICLE 19 브라질 및 남아메리카 법률참고센터 센터장은 “2050년, 문화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누구의 문화가 보호받는가, 그리고 누가 이를 정의하는가? 일부 주변화된 공동체는 마침내 발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얻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보편적 플랫폼 위에서 보편적 언어로 얘기할 때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쪽은 그 보편성을 정의하는 다수집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통합 4_청중토론: 청중의 관점>(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의

객석 발언에서도 말과 관련된 중요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말을 만들면 그와 관련된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말했고, 덴마크 참가자는 “용어 사용 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주변화(marginalized)>, <남·북 문제> 등의 단어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견 타당하지만 동시에 보편성을 획득해야 하는 소수자의 입장과 처음부터 당연하게 부여받는 다수자의 입장 차이가 짐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월드카페 table #4의 호스트를 맡아서 언어가 다른 다국적 참가자들의 친목을 북돋우기 위해 각자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서로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뿐만 아니라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러닝 올프의 부인인 캐롤라인은 “해보(한국 참가자)-바다를 꿰매다”, “투 라(뉴질랜드 참가자)-일어서는 태양”, “세레코(보즈와나 참가자)-귀중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모든 언어는 “poly-synthetic하다”⁶⁾는 남편의 오전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큰 새의 아이들”을 뜻하는 “크롤” 부족의 언어로 본래 자기 이름은 “늙은 코요테”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를 쓰며 “캐롤라인”처럼 단순하게 불려지는 이름 뒤에는 지워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며, 자신의 할아버지와 코요테 사이의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법과 행정의 언어들이 보편적 소통을 위해 선택하는 보편적인 이름 뒤에도 지워지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에서 온 참여자들이 본인들의 전통에 따라 행사 마지막 날 주최측의 환대에 답례하는 장면

<월드카페> 8개 주제 중 <④ Honouring Living (사진 출처 : 저자)

Cultures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테이블의 논의 현장 (사진 출처 : 저자)

6) 여기서는 “개별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다층적 의미로 연결되어 보다 다양한 의미를 이룬다”는 뜻으로 사용했음.

이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며, 서로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 인식과 기대는 하나로 단순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합니다. IFACCA 회원기관들만의 프로그램인 <아시아 지역 분과회의(19th Meeting of Asia Chapter)>(대학로예술극장, 5월 27일(화) 오전)에서는 문화기관들의 업무 범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기관 이름의 변경 압력과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병행 8_패널. 문화 투자모델의 미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후)의 사전회의에서도 “**Creative Australia**”처럼 예술지원 기관들이 <Creative OO>으로 이름을 바꾸는 현상과 이유를 흥미롭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역문화재단들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개명하는 것처럼, 문화기관들이 관광과 문화산업 등 경제적 가치 관련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압박을 받는 것이 이름의 변화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병행 8_패널> 토론의 좌장이었던 애드리언 콜레트(Adrian Collette) 호주예술위원회 위원장은 Creative Australia라는 조직 명칭처럼 이제는 단순히 문화정책만이 아닌 다른 모든 부처를 상대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핵심인 언어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문화기관의 이름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좀 더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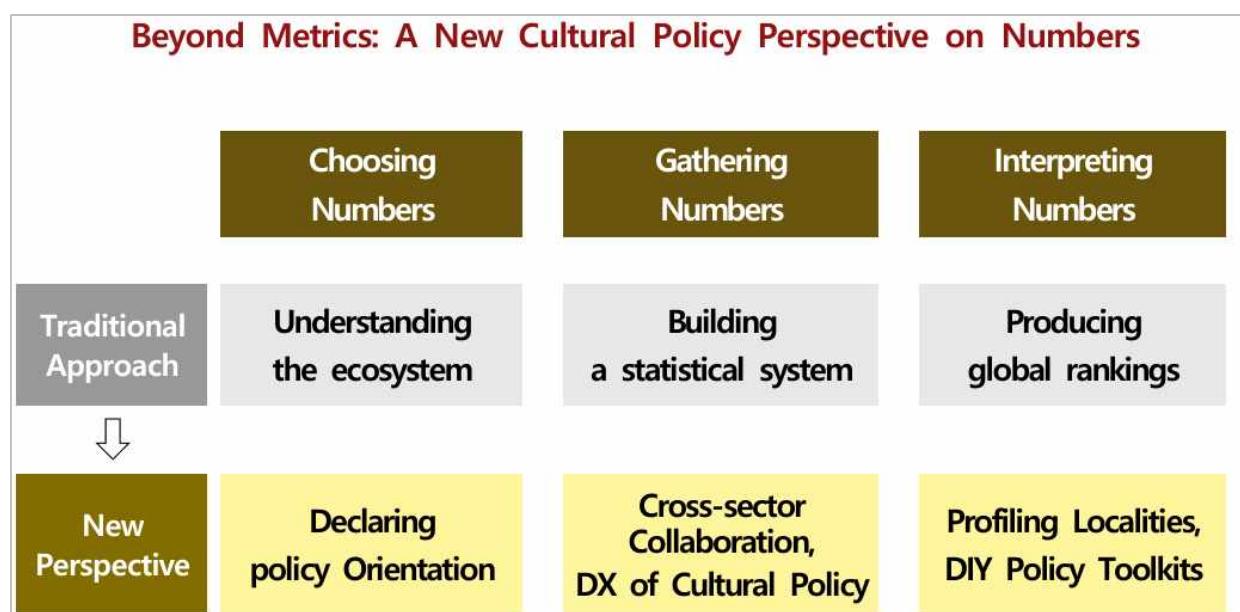
키워드 2) 서사(Narrative)와 숫자(Data)

이번 총회에서 유난히 많이 들린 단어가 바로 <Narrative(서사)>입니다. 첫날 <통합 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에서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 유엔 문화권 분야 특별보고관이 “누가 서사를 만드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 말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와 파워로 연결지어 쓰이고 있었습니다. 플루언 프림(Phloean Prim) 캄보디아 리빙 아츠 대표는 월드카페의 첫 번째 미래 시나리오 <**❶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로 가는 공동 창조의 길**>에서 “**공동체는 권한을 갖지만, 국가가 승인한 내러티브를 따를 때만 그렇다. 우리는 과연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한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자율성을 거래한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둘째 날 <대담 2: 기술혁명 시대에 서사의 다양성 지키기>(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에서 게어프리트 슈토커(Gerfried Stocker)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예술감독은 “**실제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그것을 만들 여건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통합 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Magdalena Moreno Mujica) IFACCA 사무총장은 “**누구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누구를 바꾸고 싶어하나? 정부는 강력하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식체계가 있어서 바꾸기**

힘들다. 예술은 매일의 일상 세계에서 서사(Narrative)를 바꿔야 한다. 모두가 그런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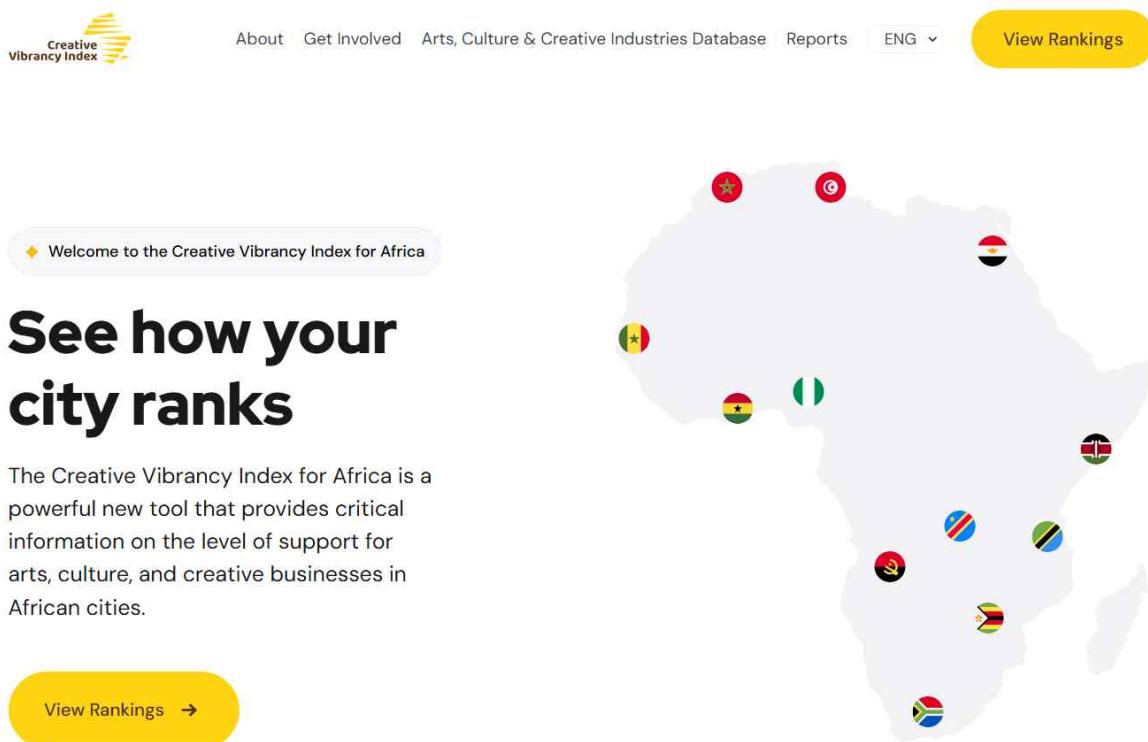
정보 처리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뇌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결과의 출력 방식이 아니라 대화하는 챗팅 방식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이 시대 문명의 주도권을 거의 거머진 챗-GPT AI기술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아직 행정영역에서는 <데이터(data)>가 <서사(Narrative)> 보다 힘이 센 듯 보입니다. 물론 정치영역으로 가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첫 날 진행된 <오픈 세션>(예술가의 집, 5월 28일(수) 오후)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세계도시 매력지표 개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숫자를 선호하는 문화행정이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려면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정책 분야에서 지표 개발은 단순한 새로운 숫자 만들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기조 세우기, 분야 간 협력, 디지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도시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끌리는 매력을 위한 서사, 그것을 정책적으로 관심 가지고 관리할 새로운 숫자 만들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화지표개발은 단순한 새로운 숫자 만들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기조 제시, 분야 간 협력, 디지털 전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의미함 (출처 : 김해보 Open Session 발표 자료)

Pan-Africa에서 <Reimagining Africa: New Narratives in Arts, Culture & Global Collaboration>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같은 세션에 참여한 마쿠라 모키와 오조마 오치아(Makura Moky and Ojoma Ochai)는 아프리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이야기와 뉴스, 즉 <Narrative>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를 바꾸는 데는 한 편의 영화로 충분”하지만, 아프리카 도시들의 문화적 역량 끌어올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역량 비교 통계 사이트인 <Creative Vibrancy for Africa

<https://creativevibrancyindex.africa/en-US/about>를 통해 도시 문화역량 순위를 발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 “서사”를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아프리카 도시들의 문화역량 순위 비교 사이트 <Creative Vibrancy for Africa>
<https://creativevibrancyindex.africa/en-US/about> (화면 캡처)

둘째 날 <병행 16_ 워크숍 :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아르코 소극장, 5월 29일(목) 오후)은 정치학자이자 컨설턴트인 다이애나 레이(Diana Rey)와 에이브릴 조프(Avril Joffe) 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란드대학교 유네스코 석좌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들은 말 중 기록된 것은 “데이터는 통역이 필요하다. 그냥 모으는 것은 무의미하다”와 “완벽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사>를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더 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 국가에서 온 한 연구자가 자기 나라에서는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문조사도 진행할 수 없고, 이는 스파이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아티아에서 온 참가자가 “내가 나를 스파이 한다는 말인가”하며 어이없어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예로 들어 “통계의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는 길은 승인통계로서의 <공신력(Authority)>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문화생활에 맞춰서 질문 문항을 적시에 바꿀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이야기와 같은 유연함까지 갖출 때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키워드 3) 기술과 속도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Magdalena Moreno Mujica) IFACCA 사무총장은 <토론문 -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의 서문에서 “기술적 발전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아니라 향후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과연 어떠한 정보나 서사, 지식 체계가 기계학습 데이터로 쓰이고 있으며, 누가—또는 무엇이—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추동하며 형성하는 언어, 문화적 코드, 세계관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열린 토론의 부재와 분열의 지속 와중에 해결 방안의 구상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합의와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고 적었습니다.



대담 2: 기술혁명 시대에 서사의 다양성 지키기 (IN CONVERSATION 2: Sustaining diverse narratives in the technology revolution)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둘째 날 <대담 2: 기술혁명 시대에 서사의 다양성 지키기>(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에서 게어프리트 슈토커(Gerfried Stocker)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예술감독은 인간의 책임과 주체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문명사 전체를 통해 “문제는 늘 존재했었고, 기술은 문제해결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기술은 외계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기술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모든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future-proof 전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호기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예술과 문화가 그것의 토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량을 개발해서 책임있는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하는데, “인간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예술가는 대담한 사람들이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대담자로 나선 푸자 수드(Pooja Sood) 인도 코지 국제예술가협회 협회장 및 공동 설립자는 “기술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사회적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인의 약 50%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AI는 아직 고가여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는 하이테크와 동시에 로우테크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꼭 최신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담을 마무리한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기술과 문화는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속도의 차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은 시속 100마일로, 정치는 3마일로,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기술 변화 속도에 대한 우려는 여러 세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 유엔 문화권 분야 특별보고관은 첫째 날 <통합 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에서 “급변하는 세계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은 그 빠른 속도를 뒤따라가기만 한다. 돌아볼 시간도 없다. 잠시 멈추고 흡수하고 되돌아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세션에서 크리스틴 다니엘슨(Kristin Danielsen) IFACCA 이사장이 “문화정책이 만들어지기는 오래 걸리지만,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고 말한 것은 기술과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지체되는 행정제도의 역설적인 현상에 들어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째 날 <통합 2_패널: 문화창의부문(CCS)의 건설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AI 윤리와 거버넌스>(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에 참여한 이진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기술변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예술가의 비판적 사고와 정부의 기업 설득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에 기술사용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지만, 적대시 하자는 말고 협력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에 있어서 기술은 “새로운 물감이고, 모든 물감에는 독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술가의 AI 사용 창작에서도 기술사용 투명성이 중요한데, “창작지원사업 신청 시,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창작의 방향을 정해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AI를 썼나 안 썼나를 예술가가 스스로 밝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세션에 참여한 미카엘라 만테냐(Micaela Mantegna) 세계경제포럼 위원은 “지금은 생각까지 기술에 지배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결핍 사고>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그녀의 주장은 그것이 예술가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논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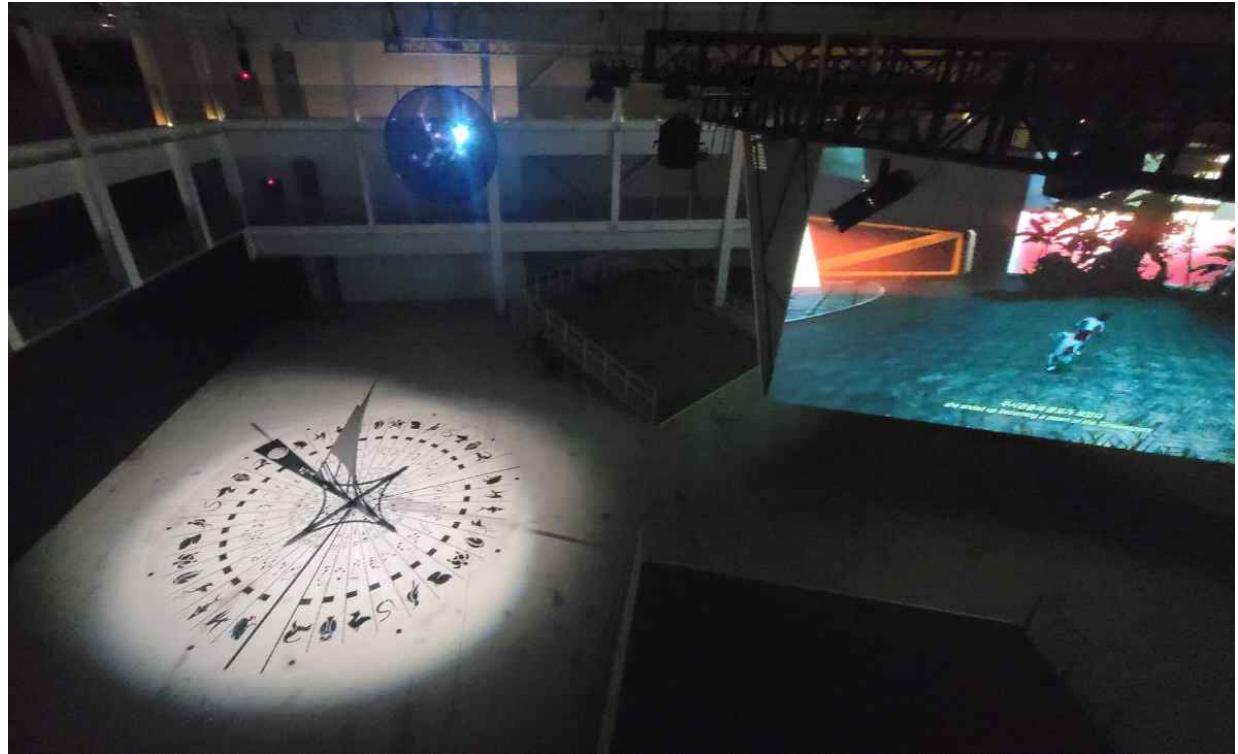


통합2_패널: 문화창의부문(CCS)의 건설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AI 윤리와 거버넌스 (PLENARY 2: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in future-proofing the CCS)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2일차 오전)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첫날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대담 1: 저항, 회복력, 대응, 갠신>(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에서 김아영 작가는 “기술은 우주에 대한 이해가 통합된 결과물이다...비유럽권은 (스스로) 우주를 이해하던 기술을 잃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서구적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보편이 되었다...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는 문화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자연 위에서 문화를 만들며 살아온 인간이 개발한 거의 최초의 첨단 기술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시간 개념 또한 지극히 문화적인 것입니다. 마우리 족은 별자리가 새로 등장하는 6월 말이나 7월 초를 새해로 기념하며 <마타리키(Matariki)>라는 축제를 연답니다. 2025년에는 마타리키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6월 20일 금요일이 마타리키 공휴일로 지정된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진행된 문화프로그램 <잔치(JANCHI)>(스테이지 28, 5월 29일(목) 저녁)에서 케드몬 마파나(Kedmon Mapana) 탄자니아 국립예술위원회 사무총장이 한 말이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아이러니 합니다. 그는 저와 크로아티아 참가자에게 “너희는 시계(watch)를 가지고 다니지만 우리(아프리카인)는 시간(time)을 가진다. 너희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앉혀 놓고 대화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낮에 저와 같은 패널 세션에서 예술가들의 등록과 지원, 과세 등 업무를 통합관리 하는 탄자니아의 <예술행정통합전산관리시스템(AMIS)>의 효능을 얘기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문화가 공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술이 문화의 반영이고, 문화가 인간의 생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가상 세계와 고대 동양의 치윤(置閏) 책력을 주제로 한 김아영 작가의 설치작품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4) (사진 출처 : 저자)

4. 9개 키워드로 재구성한 4일 간의 이야기들 #2

□ Part 2 : AI와 예술(가), 탈식민지화와 권력 재편, 원주민과 문화주권자, 바람과 보이지 않는 힘, 한국적인 것과 K, 실천하기와 연결되기

9개 키워드 (Part 2)	관련 내용들 요약
4. AI와 예술(가)	-AI는 다가오는 것이 아닌 지금 당면 문제, AI를 빼면 불평등에 관한 논의 뿐 -소통의 도구로서 AI가 등장한 이후 더욱 불통하는 인간들 -추천으로 인간 공론장을 대신하는 AI, 예술가를 대체하는 AI -AI를 놀려먹는 예술가처럼 인간의 호기심과 용기가 필요함 -AI 시대 공생의 길과 공정한 예술노동 구현을 위한 제도 필요 -예술가의 창의성이 무르익어서 쓰일 때까지 기다려 주는 태도 필요
5. 탈식민지화와 권력재편	-다수자가 자원과 힘의 독점을 추구하는 것이 식민지화 과정 -외교와 소통의 매개이면서 동시에 불평등과 식민지화의 원인이 되기도하는 문화 -AI 시대의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 우려 -언어의 탈식민지화를 통한 개념의 탈식민지화가 먼저 필요함 -인간 임파워링과 다양성만이 식민지화에 대항할 수 있는 힘 -참여 채널 확대와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 -다양성 지키기를 위한 봉기가 필요 -교육의 필요성... 오히려 국제거버넌스 주체들을 교육해야 함
6. 원주민과 문화주권자	-국가도 기계도 아닌 인간 공동체가 문화의 주체여야 함 -문화자원 소유권자로서 원주민 -문화권리 요구권자로서 시민 -구조적 접근성 제약 극복하기가 필요함 -인권=문화권=주권, 문화의 주체인 우리 모두가 문화의 원주민 -문화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Living Cultures)에 대한 존중 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문화
7. 바람과 보이지 않는 힘	-총회 문화프로그램의 컨셉 : 바람 = 트렌드 = 희망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 -돈의 양면성, 경제적 가치 지향 문화정책의 양면성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새로운 체계 필요
8. 한국적인 것과 K	-문화예술과 문화행정의 미래와 현재를 논하기에 최적의 장소 한국 -이제 한국의 사례가 당연히 글로벌한 사례가 되는 것임 -한국적인 것이 글로벌한 것이라는 인식 극복해야 함 -MZ들이 기획한 매우 한국적인 잔치와 환대 : 엠비언트 뮤직과 종묘제례악의 콜라보, 도깨비와 응원봉 -“K-”로 규정되지 않는 한국적인 것. 나에게 낯선 우리 것 찾기 필요
9. 실천하기와 연결되기	-깨닭음의 시간에서 실천의 시간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연결되어야 할 문화정책 -정책의 성과주의의 경계하기 -행동하기를 위한 연결되기. 연결되기 위한 양보하기 -여행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기. 국수주의 넘어서기 -문화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여 가치가 흘러넘치는(spill-over) 방식으로 문화기관의 역할 확장 전략 추구하기

키워드 4) AI와 예술(가)

5월 29일(목) 총회 2일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앞서 <1일차 돌아보기 (ROUND UP OF DAY ONE)>에서, 알라스터 에번스(Alastair Evans)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 전략기획 디렉터는 “AI를 빼면 할 얘기는 불평등 뿐인 듯했다”고 전날 행사를 리뷰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통합2_패널: 문화창의부문(CCS)의 건설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AI 윤리와 거버넌스>에서 오조마 오차이(Ojoma Ochai, 나이지리아 CcHUB 공동 창립자)는 “AI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논의에 참여할 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푸자 수드(Pooja Sood) 인도 코지 국제예술가협회 협회장이 AI는 “이야기의 개인화, 획일화와 같은 부정적 역할과 함께 소멸 언어의 보존과 같은 긍정적 기능도 한다”고 했지만(@<대담 2: 기술혁명 시대에 서사의 다양성 지키기>(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 <월드카페: 미래의 (재)구상((Re)Imagining our futures)>의 ‘도발자(Provocateur)’들이 그린 2050년 미래 시나리오는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통 도구인 AI로 인해 인간의 불통이 더 심화된 모습, 생성형 창작 도구에 의해 예술의 다양성이 위축된 상황이 심각하게 그려졌습니다.

<월드카페: 미래의 (재)구상((Re)Imagining our futures)> ‘도발자(Provocateur)’들의 2050년 미래 시나리오 중 AI에 의한 예술의 비관적인 미래에 관한 서술 발췌

② Fostering Dialogue Across Divides and Beyond Echo Chambers

(분열과 에코체임버 현상을 극복하는 대화 촉진)

- 파블라 페트로바 (체코 예술연극연구소 소장, Pavla Petrová)
 - . 2050년, 소설 미디어는 이념적 요새(ideological fortresses)들로 분열되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현실을 큐레이션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확인시켜 주는 것만 보여준다....
 - . 알고리즘이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왜 공적 토론의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우리는 여전히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대화’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을까?

⑥ Navig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Digital Realities and Power Dynamics

(인공지능(AI), 디지털 현실, 권력 역학 탐색)

- 이준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부교수, Zune Lee)
 - . 2050년이 되자, AI는 우리의 예술 대부분을 창작하고...인간 예술가는 드물며 특권층의 사치품이 되었다...
 - . AI 지배의 미래에서 문화 기억을 통제하는 자는 누구인가? 인간인가, 기계인가, 아니면 그것을 프로그래밍한 자들인가?

⑦ Ensuring Decent and Fair Working Conditions in the CCS

(문화·창의산업(CS)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

- 신 구(모나시대학교 문화창의산업 석사과정 책임자, Xin Gu)
 - . 보편적 기본소득은 창작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지만 혁신을 억제한다.
 - . 공공 재정 지원은 AI가 생성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 . 더 이상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 . 우리는 노동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분야를 특별하게 만드는 문화와 창의적 표현의 상징성을 희생한 것인가?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Magdalena Moreno Mujica) IFACCA 사무총장은 <토론문 -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중 <변화 추구의 대상과 실천 강령>에서 “인간 윤리나 가치관의 테두리 밖에서 자체적인 진실을 만들어 내는 기계 학습과 여타 기술적 도구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경계한다”며 이번 총회의 토론 배경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게어프리트 슈토커(Gerfried Stocker)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예술감독은, 앞서 소개한 대로 기술이 심화시킬 불평등을 우려하면서도, **“AI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가 큰 차이를 만든다. 호기심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능동적으로 기술을 놀려먹은 독일 예술가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이먼 베커트(Simon Weckert)라는 작가가 99개의 스마트폰을 한꺼번에 묶어서 끌고 다니니 구글 앱이 해당 골목에 다중이 밀집한 것으로 착각하고 경고를 보낸 사례였습니다. (@<대담 2: 기술혁명 시대에 서사의 다양성 지키기>(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



사이먼 베커트(Simon Weckert)의 "Google Maps Hack" 모습
(사진출처 : [Simon Weckert 웹사이트](#))

하지만 기술 시대에 예술가의 운명을 어둡게 하는 것은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발달된 기술에 현혹되어서 예술가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해 댈 정책 당국일 수도 있습니다. 조 쿠카타스(Jo Kukathas) 말레이시아 인스턴트 카페 극단 예술감독은 마지막 날 오전에 진행된 <통합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에서 Time, Travel, Tree, Trust, Tradition 등 T로 시작되는 키워드들을 종이에 직접 써서 들어 보이며 사흘 동안의 논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Tree>를 적은 종이를 들고는 총회 첫 날 마이클 러닝 올프가 전해준 “바위를 뚫고 자라는 삼나무”의 비유를 상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무에서 과실을 따먹고 생약을 추출하면서, 그것이 안으로 무르익지 않았는데 추출해서는 안 된다. 행정 시스템이 자꾸 예술가의 창작에서 산출물을 쥐어 짜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게어프리트 슈토커(Gerfried Stocker) 예술감독가 말한 "창의성은 석탄처럼 캐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는 코멘트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예술가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적절한 노동환경 보장 관련 논의가 여러 세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진행된 <통합3_패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적 권리와 책임> 세션에서, 시슬레 제이콥스(Cislé Jacobs) 나미비아 국립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예술가들에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결사하라고 부추길 수는 없다. 예술가들이 스스로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I 시대에 예술가들의 생존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여러 세션에서 제기되었는데, 제도의 한쪽 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법률가이자 세계경제포럼 위원인 미카엘라 만테냐(Micaela Mantegna)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늘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었다(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는 할머니의 말을 상기한다. 저작권 보호가 꼭 예술가들에게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통합2_패널: 문화창의부문(CCS)의 건설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AI 윤리와 거버넌스>(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

캐드먼 크마파나(Kedmon Kmapana) 탄자니아 예술위원회 사무총장이 <병행 8_패널 문화 투자모델의 미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후)에서 소개한 사례는 현재도 기술과 예술가 사이의 관계가 단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패널들과의 사전 미팅에서 AMIS(예술행정통합전산망시스템)을 통해 예술인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등록 예술인들에게 등록비용 10달러씩을 징수한다고 설명했을 때, 저와 호주, 크로아티아에서 온 패널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에 등록된 예술가들에게는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 등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그의 설명에, 나라마다 예술계의 정부에 대한 기대와 태도,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와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틴 다니엘슨(Kristin Danielsen) IFACCA 이사장은 개막 만찬(@DDP, 5월 27일(화) 저녁)에서 “우리는 AI, 즉 Artistic Intelligence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기술이 미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예술하는 용기와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5) 탈식민지화와 권리 재편

<1일 차 돌아보기 (ROUND UP OF DAY ONE)>(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에서 진행자 알라스터 에번스(Alastair Evans)가 “문화교류가 문화전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소개한 것은 맥락 없이 들으면 의아해질 대목입니다. 총 94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투영된 논의의 장에 <식민지화>, <남-북 문제>, <문화제국주의>와 같은,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주제들이 가감 없이 올라왔습니다.

<월드카페: 미래의 (재)구상((Re)Imagining our futures)> ‘도발자(Provocateur)’들의 2050년 미래 시나리오 중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의 위험성에 관한 서술 발췌

③ Advancing Equity, Justice and Cultural Rights

(형평성, 정의, 문화권 증진)

- 하켈 다 크루즈 리마 (ARTICLE 19 브라질 및 남아메리카 법률참고센터 센터장, Raquel da Cruz Lima)
 - . 탈식민화 노력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본주의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⑧ Strengthening Global Governance and Transnational Cultural Relations

(글로벌 거버넌스 및 초국가적 문화 관계 강화)

- 전윤형 (한국 영화정책 전문가, Yoonhyung Jeon)
 - . 2050년 일부 국가(혹은 블록)는 '문화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검열을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은 '개방 접근'을 주장하지만 그것도 그들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 . 우리는 협력을 증진시킨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를 만들어낸 것인가?

하이엔 투알리마(Hai-Yuean Tualima, 사모아/뉴질랜드 테 헤렝가 와카-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법학부 수석 강사)의 언급처럼 “식민지화는 강대국이 힘과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통합3_패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적 권리와 책임>)(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나 사물인터넷(IOT)를 넘어 행동인터넷(IOB)를 통해 인간의 모든 데이터를 착취당하면서도 기술이 만든 문명의 편리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현대인의 삶 전체가 사실 기술-자본-권력의 힘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고 보는 비판적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문화인들 역시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필자는 <병행8_패널 문화 투자모델의 미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후)에서 발표한 것처럼 인간문화재 고(故) 이매방 선생님이 남긴 오고무, 삼고무 안무의 저작권 분쟁 사례⁷⁾, 간송미술관의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NFT 판매 소동⁸⁾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공공재>라는 말은 공공정책 주체들이

7) 삼고무 논란과 안무저작권의 미래 (홍승기, 저작권보호 힘의 제도와 동향 2023 Vol 8,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참조

자신의 정책적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기치로 들어 올린 것일 뿐이며, 이 또한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엄연히 문화는 최첨단으로 진화한 문화자본주의의 핵심 서비스이자 자원이며,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스마트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전쟁은 보이지 않게 치열하다”을 강조했습니다.

첫날 첫 통합 세션 <통합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에서부터 이런 문제상황에 대한 지적과 그 해법으로서 다양성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문화부 문화시민권 및 다양성 담당 국장인 마르시아 헬레나 곤살베스 홀렌베르그(Márcia Helena Gonçalves Rollemburg)는 “문화의 균질화가 문제이다. 도시화가 그것을 가속한다”고 말했고, 유엔 문화권 분야 특별보고관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는 “서구 엘리트들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접근방식에 저항하여, 자유롭고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힘과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분배의 규칙”을 규정하는 “법의 지배 체계”를 누가 만드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면,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어의 탈 식민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통합4_청중토론: 청중의 관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OPEN FLOOR: Perspectives from the floor: what next?)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8) “간송미술관, 훈민정음 NFT로 판매... “국보를 장삿속으로 이용” 논란” (채지선, 한국일보, 2021.07.22.), “NFT 가위, 훈민정음과 혜원전신첩을 조각내다”(이지혜, 르몽드 디프로마티크, 2023.1.31.) 참조

마지막 날 발제자 없이 두 명의 진행자가 청중들의 의견을 차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통합4_청중토론: 청중의 관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는 특히 이런 관점의 얘기들이 더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라고 밝힌 스웨덴 참가자는 “예술가의 시각으로 보면 서양이 참여의 규칙을 정한 상황인데, 그걸 바꿀 방법은 무엇일까? 남반구 개도국들 사이의 협력 사업이 유럽 기금에 의존해서만 진행되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룬에서 온 참가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남-북 격차와 문화식민지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플로어 발언자는 공교롭게도 “<탈식민지화>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석학이 어제 서거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플로어 발언자가 언급한 사람은 바로 케냐 출신 작가이자 언어이론가이며,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여러번 거론되었던 응구기 와 티옹오(Ngũgĩ wa Thiong'o)였습니다. 응구기 와 티옹오는 “Decolonising the Mind”(1986)에서 언어의 탈식민화를 주장했었는데, 마침 2025년 5월 28일에 서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투옥 된 후 케냐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 엘리트 언어에서 벗어나 케냐의 토착어인 기쿠유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석방 후 영어 집필을 중단하고 기쿠유어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작품 『십자가 위의 악마』는 기쿠유어로 쓰인 최초의 현대 소설이었으며, 이후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전환점을 이룬 역사적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2016년 박경리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마침 행사 중인 5월 29일에
별세한 케냐 작가 응구기 와
티옹오(Ngũgĩ wa Thiong'o).
그는 “Decolonising the Mind”
(1986)에서 언어의 탈식민화를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중앙일보
2025.5.29.일자)

<통합3_패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적 권리와 책임>(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에서 하이엔 투알리마(Hai-Yuean Tualima, 사모아/뉴질랜드 테 헤렝가 와카-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법학부 수석 강사)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제도 설정 시 토착민 전통 지식 자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만들 힘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적 권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누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나? 예술가인가 국가인가?"라는 그의 질문에 대해 플로어에서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 유엔 문화권 분야 특별보고관이 "국제기구가 오히려 종합적 접근을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이 배워야 한다.
그들이 탈식민지화되어야 한다"는 자기 부정과 같은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Magdalena Moreno Mujica) IFACCA 사무총장도 마지막 날 전체 논의를 종합하는 <통합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 "현재 문화정책들이 우리가 대응하려는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닌가? 권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표준화가 답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문화자원을 수탈당하는 식민지화 상황의 개선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제도의 변화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제도를 이루는 언어의 변화는 결국 공통 언어를 선택하는 힘의 변화로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나 문화주체들 사이에서 차이나는 힘 겨루기 방식이 아닌 평화 공존의 방식으로 문화의 탈식민지화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렇게 확보되는 다양성만이 인류 문명의 생존조건임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세한 종이 열세 종을 팍박하고 사멸시키는 방식으로는 생태계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에 대한 식상함과 반감이 크다면, 좀 더 과학적인 예로 그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모두 할 수 있는 생명체가 굳이 유성생식을 선택하는 이유도, AI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갈수록 멍청해지고 결국 봉괴되는⁹⁾ 이유도, 다양성만이 긴 안목의 생존을 보장하는 진화론적 진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탈식민지화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어느 한편이 계속 착취당하는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권력 재편과 자원의 재분배를 인류 전체가 스스로 평화롭게 해내는 것이, 결국 인류 전체의 존속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좁게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 플랫폼과 개인의 종속 문제,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리 불균형 문제에 모두 적용되어야 할 관점입니다. 서로 연결되면 한쪽이 식민지로 착취당하기만 할 뿐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야 더 활발한 문화교류도 가능하고, 개별자를 넘어 더 큰 존재로의 발전도 가능합니다.

9) AI 생성 콘텐츠로 훈련한 AI 모델은 '봉괴' (정병일, AI타임스, 2023.6.13.)

키워드 6) 원주민과 문화주권자

<월드카페: 미래의 (재)구상((Re)Imagining our futures)>에서 <**④살아 있는 문화(Living Cultures)**와 원주민 지식 체계 존중> 주제로 '도발자(Provocateur)' 역할을 맡은 하니코 테 쿠라파(Haniko Te Kurapa, 뉴질랜드예술위원회 테 카우파파 오 토이 아오테아로아 수석 관리자)는, "고대의 지혜를 특허화하는 기업들이 이윤을 얻기 시작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문화(Living Cultures)를 존중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들의 지식을 착취 가능한 자원으로 추출한 것인가?"라는 말로 원주민 문화자원의 부당한 유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진행한 Table 4의 논의는 **단순히 문화자원의 특허권 문제에 머물지 않고, 문화 주권, 문화적 시민권, 문화적 기본권을 넘어, 문화가 세대를 넘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건전한 부채 의식"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우선 특정 지역에 터 잡고 살아온 삶의 주체에게 토지 소유권 등 다양한 권리 주체로서 자격을 인정하는 기초가 법률 체계에 근거한 시민권이라면, 그 법률이 상정하는 "보편적인" 삶터와 삶의 양식 사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시민권과 문화적 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태평양의 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에게는 "시민권은 땅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귀속시킬 땅은 없다"는 말이 너무 쉽게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인터넷에서 <바자우(Bajau)>라는 동남아시아의 "바다 유목민", <모肯(Moken)>이라는 안다만해의 '바다 집시'들의 사례를 찾아보고서야 땅을 기준으로 한 대부분의 고전적인 권리관계 규정이 보편적일 수 없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어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집단의 힘에 의해 채택된 공용 언어로 표현되는 법의 체계가, 그 언어적 표현 보다 더 넓은 사례와 개념들을 담고 있는 개별적 삶의 현실을 담아 내지 못하는 상황은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월드카페: 미래의
(재)구상((Re)Imagining our
futures)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28일(수) 1일차) 중
Table 4. 살아 있는 문화와
원주민 지식 체계 존중
(Honouring Living Cultures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논의 내용 장면
(사진 출처 : 저자)

월드카페 Table ④의 논의는 “법의 체계 안에서 소유와 권리 주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필요하다”, “그들(기업, 국가)은 조직화 되어 있지만, 원주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공동체의 문화자원을 예술 창작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없다. 하지만 자기가 속하지 않은 문화권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등, 자원으로서 문화, 그것의 소유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화주권,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마침 당일 오전에 있었던 <통합3_패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적 권리와 책임>(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에서 시슬레 제이콥스(Cislé Jacobs) 나미비아국립예술위원회 위원장은 “WIPO에서 전통지식을 “기타”로 생각했던 게 문제이다....예전의 제도로 지금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우리 선조에게서 물려 받았고 우리 자손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다. 문화도 같다”는 Table 4 참여자들의 인식은, 위의 논쟁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을 놓고 벌이는 소유권 분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Table 4 참가자들이 “미래에 원하는 미래 모습”으로서, “문화는 각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의 양식인데 우리 후손도 우리와 같이 그것을 자유롭게 누리면 좋겠다”로 정리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제도 문화개발부 장관급 차관인 에밀 카이루아(Emile Kairua)는 마지막 날 <통합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문화와 삶의 연결성은 더 강하다. 사람이 문화고 문화가 사람이다”고 말했습니다. 원주민과 전통 지식체계 관련 의제가 단순히 문화자원 소유권이 아니라 문화기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첫날부터 견지되고 총회 전체를 통해 관철되고 있었습니다. 마르시아 헬레나 곤살베스 홀렌베르그(Márcia Helena Gonçalves Rolemberg) 브라질 문화부 문화시민권 및 다양성 담당 국장은 <통합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에서 “청년층의 참여를 중시해야 한다....예술은 영혼을 위한 교육 도구이다.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문화권 분야 특별보고관인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는 “문화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문화는 마음을 움직이는 행복의 원천이다. WIPO는 유네스코가 문화적 권리와 인권 관련 관점으로 연결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실천되기 위해서, 에밀 카이루아(Emile Kairua) 차관은 “권력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문화가 길을 잊은 것은 그 사람들이 길을 잊은 것이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되돌아가서 진실되게 경청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Magdalena Moreno Mujica) IFACCA 사무총장이 첫 날 <환영 및 개회>(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 연설을 “지금 듣고 있을 호주의 원주민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의례적이든 진지한 것이든 저에게는 들 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단일 민족”의 신화를 믿는 한국인의 문화정책 관점으로 보면 최근 “원주민” 의제가 국제 문화정책 토론 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카페 Table ④살아 있는 문화(Living Cultures)와 원주민 지식 체계

준중(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28일(수) 오후)에서 잠깐의 대화를 통해 깨우친 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문화의 원주민”입니다. 문화를 삶의 양식으로 확대해서 보는 관점으로, 문화기본권이라는 의제를 정책의 레토릭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의 기본 요소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국제 문화정책 담론장에서 원주민 의제가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단지 소수집단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자 고유한 삶의 양식을 향유할 “문화 기본권”을 요구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그 삶이 만드는 자원적, 비자원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화 주권자”로서, 우리는 모두 “문화의 원주민”인 것입니다. 지금 다국적기업이 최첨단 문화-인지자본주의를 구동하는 자원으로 채굴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문화자원은 오지(奧地) 원주민의 전통 비법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생활 속 모든 활동과 감정 반응까지 데이터 자원으로 채굴해 가려고 기를 쓰는 지금, 우리 모두가 “나의 문화를 지켜야 할, 인간 문화의 원주민”인 것입니다.

키워드 7) 바람과 보이지 않는 힘

총회 문화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컨셉노트에서 그 컨셉을 “바람”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The wind flows free, Breathes Anew : An Invitation through the Wind / 막힘 없이 흐르고 새롭게 불어오다 : 바람의 초대”라고 서술된 기획 의도는 첫 날 리움 미술관 로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인 구문모 교수의 연설에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구 교수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흐르며 움직이는 힘인데, 문화예술의 존재가 그러하다....”바람이 불어야 연이 난다”는 속담 처럼 참여자들의 에너지로 연이 멀리 날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ind와 Wish와 Trend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바람”을 전체 문화프로그램의 컨셉으로 선택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안목이었고, 실제 모든 문화프로그램은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이 대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대화들을 엮어 봅니다. 그 대화들은 이번 총회에서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저의 질문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는 높이 날고 있는 연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한류~Korean Wave”라고 “멋지게 보이게 포장된 바람”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자꾸 멋지게 보이는 바람만 칭송하니, 문화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려고 노력> 하기 보다는 <보여지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문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의 가치를 소통하는 어려움은 나라를 막론하고 비슷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어느 나라나 어려운 과제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월드카페: 미래의 (재)구상((Re)Imagining our futures)> 도발자(Provocateur) 플루언 프림(Phloean Prim) 캄보디아 리빙 아츠 대표는 첫 번째 미래 시나리오 <❶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로 가는 공동 창조의 길>에서 “2050년, 문화 분야는 마침내 필수적인(essential)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가가 따랐다. 정부는 문화를 지원하지만, 그것이 경제적 목표에 부합할 때만 그렇다”라며 우울한 미래상을 그렸습니다. 시에라리온의 문화정책 자문가이자 작가인 야리 카마라(Yarri Kamara)가 전하는 아프리카 문화생태계의 모습은 그것이 2050년의 미래가 아니라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창의산업에서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지만 일자리와 매출 중심으로 집중된다. 그 결과로 문화적 혜택이 조금 있지만 정책적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계속 창조산업 프레임으로만 진행되면 충분한 구매력 없는 사람들의 문화접근성 보장이 어렵다. 문화적 경제성장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분쟁만 커질 것이다. 창의산업 정책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통합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

마지막 날 <통합4_청중토론: 청중의 관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 중 플로어에서 들린 말에 귀 기울이면, 그것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만의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독립기획자가는 “문화예술이 콘텐츠로 인식되어 경제적 기대와 관료주의에 갇혀있다. 문화예술의 내재적 가치에 집중해서 설득, 표현, 대화할 방법을 예술가와 함께 고민하여 세상을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첫 날 오픈 세션에서 청년들의 문화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던 카자흐스탄 참가자는 이 날도 “돈은 두려워 할 것이 아니다. 돈은 선하다. 피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차 돌아보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전)를 진행한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Sylvie Durán Salvatierra)가 “경제적 가치를 흑백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문화가 다른 영역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리뷰한 부분이 그녀의 주장과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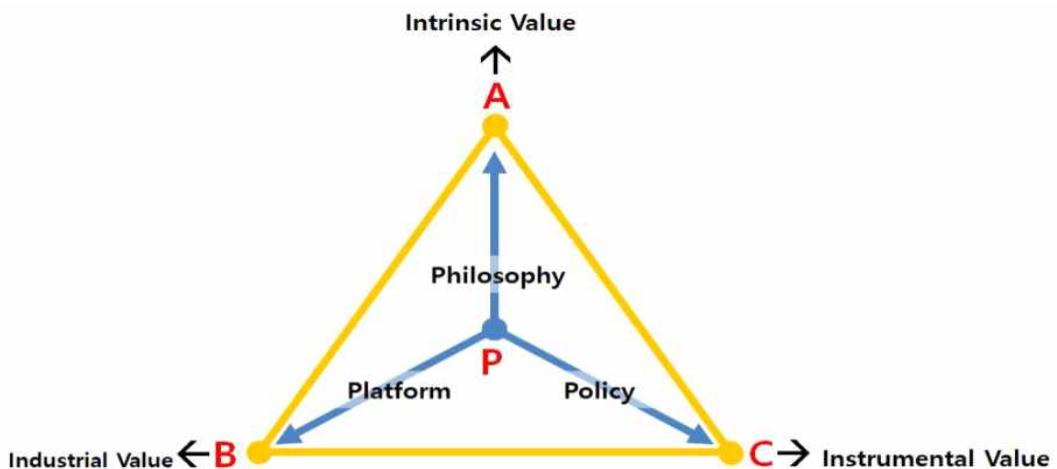


“돈은 두려워 할 것이 아니다.
돈은 선하다. 피할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카자흐스탄
참가자
통합4_청중토론: 청중의 관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OPEN FLOOR:
Perspectives from the floor:
what next?)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
(사진 출처 :

경제적 가치로 표현되어 보여지는 문화의 가치만 중시하는 것이 문제이지, 문화에 내재된 가치 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도, 무시할 만한 수준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반대로 무지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으로는 <문화투자의 혁신>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修辭)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병행8_패널 문화 투자모델의 미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9일(목) 오후)에 참여한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은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려는 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당연 시 해온 기정상생(奇正相生),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 동양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식하는 <3-I Cultural Values for ABC-P>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이해하면, “사회적인 것이 곧 경제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I Cultural Values for ABC-P> Model by Hae-Bo KIM(2025)			
3-I Cultural Values		A-B-C Stakeholders	P-factors influencing stakeholders' perceptions and value transactions
Social (經世濟民) Value	Intrinsic Value	Artists & Academia	Philosophy
	Economic(經濟) Value	Industrial Value	Business
		Instrumental Value	Civic
			Policy



3-I Values of Culture for ABC-P Balanced Cultural Ecosystem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포함하여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새로운 모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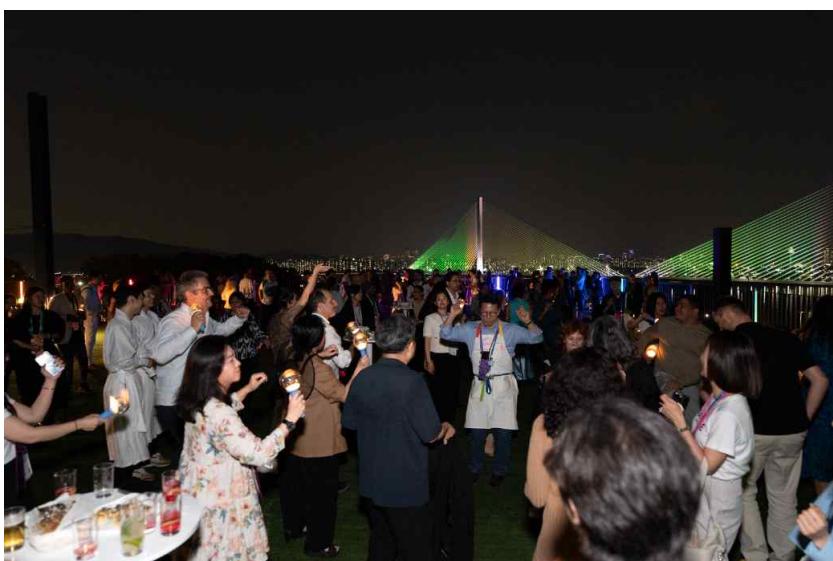
(출처 : [김해보의 패널 세션 발표자료](#))

<토론문 -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서문에서는 “작금의 문화가 도구화, 고립, 저평가, 상품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다층적 위기에 대한 논의의 후속 작업으로서 긴급 조치의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 실천은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동안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서양의 인식론이 문화의 가치 설명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동양의 관점을 적용할 생각을 왜 안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서양인들이 동양인이라고 보는 우리도 사실은 동양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키워드 8) 한국적인 것과 K

첫날 문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리움 미술관 투어>(5월 28일(수) 저녁)의 라운지 스피치에서 IFACCA 이사회 멤버인 남아프리카 참석자는 “이번 총회는 문화예술과 문화행정의 미래를 만드는 자리인데,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서울이 전통과 미래의 혁신을 동시에 보여 주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환영 및 개회>(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 행사에서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질곡의 시간을 극복하고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15세기 세종대왕의 한글, 20세기 백남준의 기술과 예술, 21세기 BTS와 영화 “기생충”的 성공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토론 의제와 관련된 한국의 장소적 적절성이 저렇게 언급되는 것은 (조금 식상한 표현이지만) 충분히 수긍이 되고, 총회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 적절한 토론의 장소적 맥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침 월드카페(WORLD CAFÉ)의 ‘도발자(Provocateur)’ 파블라 페트로바(Pavla Petrová) 체코 예술연극연구소 소장이 <^② 분열과 에코체임버 현상을 넘는 대화 촉진> 미래 시나리오에서 “2050년, 소셜 미디어는 이념적 요새들(ideological fortresses)로 분열되었다”고 말한 상황은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탄핵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남보다 빠르게 근대화를 이루었던 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첨단 기술 문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의 질곡도 남보다 앞서서 강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사례부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저출생 인구절벽 상황, 그리고 정치적 위기 극복까지, 이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문제를 푸는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대처 사례를 외국이 벤치마킹 하는 상황이 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토통이식 정신승리 구호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사례가 바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을 담담히 인식하는 것이 진정 글로벌한 인식입니다. 그렇게 이미 글로벌 한 것에다가 굳이 “K-”라는 로컬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로컬리티를 내세우는 마케팅 전략으로 먹힐지, 국수적이고 촌스럽게 보이는지, 총회에 모인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응원봉, 한강, 디제잉파티,
환대와 흥이 넘치는 잔치..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이 매우
한국적인 경험으로 기억할
모습들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저에게는 한국문화의 매력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던 이번 총회의 문화프로그램 전체 구성과 완성도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점심 도시락부터 최고급 만찬으로 진행된 <잔치>, 그리고 마지막 날 마로니에공원에 떡볶이, 어묵, 닭강정 등 길거리 음식 잔치를 푸드 트럭으로 연출한 <페막 오찬>에서 보여준 음식문화에 대해서 국제미식·문화·예술·관광연구소 회장이자 IFACCA 자문위원인 다이엔 도드(Diane Dodd)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제행사로서 이번 총회의 문화기획적 품격은 행사 일정을 담은 <프로그램>과 토론 의제를 담은 <토론문>과 별도로 문화프로그램 <컨셉 노트>까지 제공된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마지막 날 그 <컨셉 노트>를 읽어보았느냐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MZ 스탭들의 말에서 이번 문화행사 기획에 들인 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스테이지28에서 진행된 문화프로그램 <잔치(JANCHI)>(스테이지 28, 5월 29일(목) 저녁)는 단오의 “다시 일어나는 바람”을 모티브로 기획되었다고 컨셉 노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직접 잔치 호스트 역할을 맡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말대로 “가진 것을 끝까지 다 내주는 진심 어린 환대”로 진행된 한국적인 잔치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품격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에서 발산된 흥을 못 이긴 한국 참가자가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는 모습 위로 “Koreans champion everywhere!(한국인들은 어디서나 돋보인다)”이라는 외국 참가자의 부러움 담긴 말이 들렸습니다.



<스테이지 28>에서 진행된 문화프로그램 “잔치”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공연 촬영 중인 참가자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사실 도깨비를 모티브로 한 메인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DDP에서 진행된 개막 만찬에서 종묘제례악, 정가, 엠비언트 뮤직을 혼합했다는 “해파리” 그룹의 개막공연을 보면서는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한국적인 것으로 느껴질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인이지만, 외국인들에게 K-팝 콘서트와 탄핵 집회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소개되며 기념품으로 제공된 응원봉을 이번 총회장에서 처음 잡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인 우리는 각자의 세계 속에서 각자에게 낯선 한국문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K-”를 갖다 붙인다고 다 “한국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한국적인 것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한국적이라고 받아들이는 한국의 모습”이 바로 “한국적인 것”일 텐데, 그 해석의 주체는 지금 한국을 경험하는 다양한 세대의 한국인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까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인 나에게 낯선 한국적인 것을 찾아서 그걸 공유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국경과 세대를 넘어서는 문화적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키워드 9) 실천하기와 연결되기

크리스틴 다니엘슨(Kristin Danielsen) IFACCA 이사장은 <폐회사(CLOSING REMARKS)>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로 "(이번 총회에서 얻은 결론으로서) 절대 양보 못 할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주체성 가진 문화주체로서) 다양성 축소에 저항하기, (모든 현존 프레임을 활용하여) 문화적 권리 확보하기,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함께 폐회사를 맡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는 장식이 아니다... 예술은 현실의 불의에 눈감지 않았다... 질문을 넘어 실행을 해야 할 때다... 다음 만남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행동하고 연결하자"며 담론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스테이지 28>에서 진행된 문화프로그램 “잔치” 중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유등 띠우기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된 <통합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 실천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AI 연구자 마이클 러닝 울프(Michael Running Wolf)가 “당신들(문화정책가)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해결된 상황의 지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참가자들의 코멘트 있은 후에 “오히려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는 “청년세대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소통하는 힘을 갖는 것. (기성)문화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Magdalena Moreno Mujica) IFACCA 사무총장이 “첫날 맨 첫 번째 연사가 마지막 날 마지막 코멘트를 한 것은 의도치 않은 장면이었다”고 말하며 감탄했듯이 참으로 의미 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관통하는 <소수자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 주체성>, <문화와 언어를 통한 상호 소통>, <선조로부터 물려받고 후손으로부터 빌려 쓴다는 생태적 관점>이 드러나는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천의 목표를 향한 실천의 방법으로서 중시된 키워드가 “연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끼리의 연결뿐만 아니라 정책과 시민의 연결, 정책과 정책 사이의 연결을 포함한 것입니다. 같은 세션에서 하스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Jazmín Alejandra Beirak Ulanosky) 스페인 문화부 문화권리국장은 “시민과 문화의 연결성 높이기가 필요하다. 시민 일상생활에 문화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문화를 활용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 이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8%의 국민들만이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는데, 갈수록 문화정책의 역진성이 커지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조 쿠카타스(Jo Kukathas) 말레이시아 인스턴트 카페 극단 예술감독은 T로 시작되는 키워드들 종이에 직접 써서 설명했는데, <Travel : 여행>을 적어 보이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행을 해야 한다. 국수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동하면서 배운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2일차 돌아보기 (ROUND UP OF DAY TWO)>(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을 진행하던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Sylvie Durán Salvatierra)이 “서로 양보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고 말하며 잠시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던 자리 떠나기, 양보하기와 감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세션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에서 말레이시아 The Instant Café Theatre Company의 예술감독 조 쿠카타스(Jo Kukathas)가 T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행사 전체를 리뷰하는 장면
(사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마지막 세션에 영상메시지로 참여한 에르네스토 오또네 라미레즈(Ernesto Ottone R) 유네스코 문화담당사무총장보는 “문화가 모든 영역의 정책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첫날 <통합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28일(수) 오전)에 참여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문화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조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외생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하루 전 5월 27일 오전에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아시아 지역 분과회의(19th Meeting of Asia Chapter)>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특히 관광과 문화산업 등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Creative OO”과 같이 예술지원기관들의 역할 범위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책 영역의 연결과 확장 요구와 동시에 예술가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고전적인 핵심 업무영역에 집중하라는 요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때 선택할 전략은 문화예술의 핵심적,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스플로버(Spill-over) 전략을 택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에서의 논의를 모아서 좀 더 현명한 전략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스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Jazmín Alejandra Beirak Ulanosky) 스페인 문화부 문화권리국장은 마지막 세션에서 “문화와 사회 간의 재연결을 위해 힘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권력을 축적하려 하지 말고 나누려 해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힘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세션에서 조 쿠카타스(Jo Kukathas) 말레이시아 인스턴트 카페 극단 예술감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한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긴 안목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행정의 성과주의를 경계했습니다. 크리스틴 다니엘슨(Kristin Danielsen) IFACCA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빵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아 후손에게서 빌려 쓴다는 말처럼, 나는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과거 이사장으로부터 물려 받았고 미래 의장으로부터 빌려서 쓴다. 각자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리더십이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 리더십이라면 정말 문화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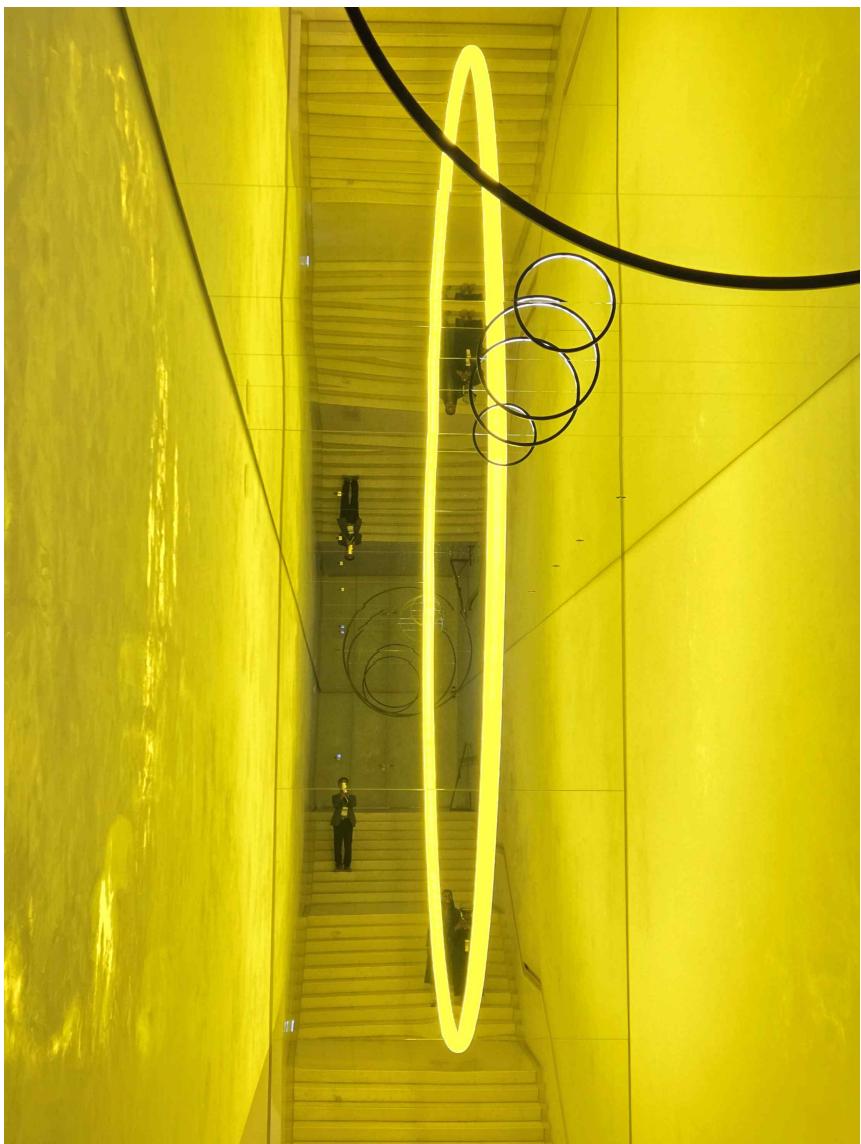
4일 간 문화와 예술과 미래에 대해 통찰하는 야단법석(惹端法席)을 이끈 리더 3인 :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틴 다니엘슨 IFACCA 위원장(Kristin Danielsen),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IFACCA 사무총장(Magdalena Moreno Mujica) (사진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IFACCA)

4. 문화예술로 세계 만들기 (World Making or Building)

사전에 제공된 <토론문> 중 에티오피아의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프로그램 큐레이터인 사라 압두부슈라(Sarah Abdu Bushra)가 저술한 <**④세계만들기**를 향하여 (Towards worldmaking)>에서는 “**집단적 모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듯, 다양한 지식 생산을 위한 원천과 공간 또한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만들기(worldmaking)의 핵심적 행위인 것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은 경험, 언어, 예술, 문화적 토대, 상상을 바탕으로 다층적인 세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한 미국 철학자 넬슨 굿먼(Nelson Goodman)의 <세계 만들기의 방법(Ways of Worldmaking)>(1978)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수행적 실천(performative exercise)이자, 단일한 세계관을 거부하는 유동적 과정(flux)**”이며,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핵심적 활동이며 변혁적인 실천(transformative practice)**”인, “**세계만들기(worldmaking)를 위한 우리의 행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통합4_청중토론: 청중의 관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오전)에서 리움 미술관 계단에서의 얻은 사진 한 장과 깨달음을 소개했습니다. “리움미술관 계단에서 만난, 거울에 반사된 반원과 실제 반원 네온이 온전한 원을 이루는 작품처럼, **세상은 1/2의 물리적 실체와 1/2의 그것의 반영(反影),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나>로 이루어진다.** 내가 본 작품에서 물리적 실체 자리에 우리가 실재한다고 믿는 <문화의 가치>를 두면, 그것이 거울에 비춰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각자에게 인식되는 문화의 가치일텐데, 그것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나는 이 둘이 합쳐진 형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인식주체로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날의 사진 속에 함께 넣었다. 평소와 같은 실재(가치)를 마음에 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새로운 맥락을 만나면서 인식의 폭은 넓어지고, 소위 “계몽”되어 좀 더 나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국제행사의 묘미이다. 이번 총회가 다양한 맥락들을 만날 수 있도록 너무 훌륭하게 프로그램되어서 고마웠다. 반면 우리는 문화정책 실천가로서, 각자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주체로서 자신의 철학과 관점을 재확인하고 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의 제목을 “The world is formed by what is, what is reflected, and the one who sees. I see you All!”로 정해서 주최 측에 보내는 감사 메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세계만들기(worldmaking)를 위한 우리의 행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사례와 생각을 주고받고 깨달음을 얻어 성장한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문화예술로 더 좋은 세계 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문화예술로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애쓰고 있는 모든 동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흘간의 야단법석(惹端法席)에서 얻은 교훈을 나눕니다.



필자가 통합4_청중토론: 청중의 관점(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월 30일(금) 3일차 오전) 세션에서 이번 행사를 통한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소개한 리움미술관 투어 중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The world is formed by what is, what is reflected, and the one who sees. I see you All!”

1/2의 물리적 실체, 1/2의 투영된 이미지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주체가 “World Making”의 핵심요소임
(사진 출처 : 필자)

※ 이슈페이퍼에 사용된 기사들과 보고서 원본은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텔레그램 채널에 수시로 게시됩니다. ► 채널 구독 링크 : <https://t.me/+phcLQTIMWII4Y2U1>

※ 이슈페이퍼 내용은 작성자(sea@sfac.or.kr)의 견해일 뿐,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내용 관련 의견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반영하겠습니다.

Vol. 2025-6

『문화예술로 그리는 미래』

(제 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정책 리뷰) Part #1 ~ #2 통합본

발행일: 2025년 6월 12일

발행인: 송형종

발행처: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기획·집필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김해보 전문위원

편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자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서울문화재단 블로그
[문화+정책] 바로가기

문화예술 뉴스 스크랩
텔레그램 채널 바로가기

